

전남도, 친환경 양식산업 경쟁력 확보 630억 투입

지속가능한 양식업 위해 투자 필요 재해 예방·지역특화품종 육성 집중

전남의 중요 자원 가운데 하나인 양식장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스마트 양식산업에 대해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 부하가 높은 어구 및 시설, 노동력 투입 중심의 양식장 시설 등을 친환경·스마트 시설로 고도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전국 양식장의 76%에 밀집해 있으며, 물김, 미역, 다시마, 전복 등 수산물의 보고인 전남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에 630억원을 투입한다. 양식시설의 자동화 및 첨단화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재해 예방사업, 지역특화품종을 집중 육성해 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도 대응해 양식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에는 해수면에 해조류 8만5014ha, 패류 2만5875ha, 기타 1만4208ha 등 12만5097ha의 양식장이 있으며, 내수면에는 197ha의 양식장이 있다. 이 양식장에서 지난해 전국의 58%에 해당하는 198만8000t의 수산물이 생산됐다.

전남도는 우선 친환경양식어업 육성과 양식 생산지원 등 13개 사업에 395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양식시설 구축,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사료 급여 자동화 시스템, 어류양식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어가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

또 영광 잠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기반시설 공사비로 60억원을 투입해 잠조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고용 창출에도 힘쓸 방침이다.

큰 인가를 끌고 있는 물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물김 채취량과 김 할성처리제를 비롯해 김 육상재묘 시설과 냉동망 시설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스마트 김 중저 배양시설에도 14억원을 신규 투입해 김 산업 안정화에 나선다.

또 양식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조류 부산물과 패각 부산물이 사료 원료와 첨가제로 활용되도록 예산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재해 대응과 예방을 위해 6개 사업, 153억원을 투입해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조 발생 대응 및 이상수온 대응 장비, 백산·면역증강제를 보급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폐사체 처리기를 지원해 재해에 따른 피해 예방과 복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2억원을 들여 시장성이 높은 고소득 유망품종 집중 육성사업 5개 사업을 추진한다. 새우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굴·조개·바리류 등 중장구입비 지원과 함께 유휴수면을 활용한 창업어장 개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위생적인 생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예산 50억원을 신규 투입해 굴 까기 작업장을 현대화함으로써 굴 수출 확대 등 전략품종 육성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지속적인 수산양식 기반 구축을 통해 고품질 수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수산양식에 접목해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양식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거금도 조생종 양파 피해 현장 방문
양파 재배 현장을 방문,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0일 한파 피해를 입은 고흥군 금산면(거금도) 조생종 양파 재배 현장을 방문,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의료현장 복귀해 도민 건강 지켜달라”

“의사는 지도자급” 사회적 책무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며 의료 현장에 남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남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도내 국립의대 설립을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김 지사가 의대 정원 확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정부 조치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전남도는 오는 4월 각 대학별 의대 추가 정원 배정 시 정부가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인 전남에 국립 의대 설치를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김 지사는 20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대해 “정원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이뤄진 사항이고 세계적인 추세”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사는 사회적 지위가 지도자급”이라며 “현장에 복귀해 도민 건강과 환자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표명은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계의 반발에 막혀 전남 국립의대 설립 좌절을 맞았던 김 지사가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발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연계해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등 3자가 학령기까지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촉구

했다. 김 지사는 “시급한 저출생 시대, 출생수당 도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기반을 닦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군과 연계해 세부 시행계획을 잘 세우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이끌어 출생률을 올리고, 특히 도에서부터 돌봄문화를 선도해 모범을 보이자”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민주주의 정상회의 3월18~20일 한국서 개최

바이든 주도 회의체...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주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20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 기간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분회의와 장관급 회의, 워크숍 등을 연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권위주의 부상 등 도전에 맞서 민주주의 진영의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했다.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의 분회의는 20일 저녁 화상 형식으로 열린다.

첫날인 18일에는 장관급 회의와 민간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회 및 워크숍 등 행사가 진행된다.

앞서 2021년 1차 회의는 화상, 2023년 2차 회의는 화상과 대면 방식이 혼합된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발달장애인·가족 일상적 활동 지원

354억원 투입 전년 대비 5.7% 증가... 발달재활·돌봄서비스 강화

전남도가 올해 354억원을 들여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적 사회활동 참여 및 권리 보호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5.7%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잘 보내도록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172억원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11억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 35억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 돌봄서비스 11억원 ▲발달장애아 부모·가족 지원 등 25억원이다.

주간 활동 서비스는 친구·동료 만나기, 음악·미술·문화활동, 요리, 운동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18세부터 64세까지 월 132시간에서 최대 176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6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립 준비 및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 등의 서비스를 월 66시간

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을 돕기 위해 지난해 대비 750명 늘어난 4386명의 중증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금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아동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수행기관도 1개소에서 동·서부권 2개소로 확대한다. 대상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전용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발달장애인이 확대, 성별, 경제적 착취 등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수사 의뢰 및 보호조치 등 장애인 권리를 지키도록 권리구제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가계 빚 1886조원 또 사상 최대 기록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보다 8조원 불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높은 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 이상 늘었고, 연말 카드 사용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기존 역대 기록이었던 작년 3분기(9월 말·1878조3000억원)보다 0.4% (8조원) 많았다.

가계신용은 가계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

를 말한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2022년 4분기(-326000억원)와 작년 1분기(-14조4000억원) 잇따라 뒷걸음쳤지만, 2분기(+8조2000억원) 반등한 뒤 3분기(+17조원)를 거쳐 4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잔액이 1768조3000억원으로 3분기 말(1761조7000억원)보다 0.4%,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역시 잔액이 전년 동기인 작년 3분기(1761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11개, 히노기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可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뭇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뭇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 7시
- 장 소: 심미문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부동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문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밀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골담 및 수목장 수목파 종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점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직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문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재출공고)

주식회사 광명이앤씨(“갑”)와 지원에너지 주식회사(“을”)는 2024년 2월 19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의 소방시설공사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 양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의의를 제출하여 주사가 바뀌리.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의 주권을 제출하여 주사가 바뀌리다.

2024년 2월 21일

“갑” 주식회사 광명이앤씨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303-5호 (가산동, 코오롱테크노밸리)
대표자 사내이사 송민자

“을” 지원에너지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주동길 42(주상동)
대표자 사내이사 박문수

분묘개장공고(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를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유언장이나 유족명의로 의뢰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남 순천시 팔림면 운원리 207
2. 분묘기수: 2기
3. 개장 사유: 공동제정원 조성
4. 개장방법:
 - ① 유언장부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② 유언장부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제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순천시립무덤공원
7.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8. 신고처: 토지소유자(순천비대마을위원회위원장)김경민 순천시 팔림면 대리길 54 김경명 (010-2277-8590)
9. 신고방법: 분묘개장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복부,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4년 2월 21일
위공고인: 김경명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기재문의
062.227-9600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재출공고)

주식회사 광명이앤씨(“갑”)와 지원에너지 주식회사(“을”)는 2024년 2월 19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의 소방시설공사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갑”은 발행주식 15,000주를 감소하고 “을”은 발행주식 15,000주를 증가한다. “갑”의 분할된 전기공사사업의 생산, 부채 등 “갑”의 전기공사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며 합병 제53조(양도) 제2항의 의거 분할된 재산(부채)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금은 출자대상 인의 제에 대하여는 연대담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안치일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의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사가 바뀌리.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회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분할합병대상: 전기공사사업 (원남-020593)

“갑” 주식회사 광명이앤씨
광주광역시 광안구 전곡산단중앙로 178 (전곡동) 사내이사 김형철

“을” 주식회사 광명이앤씨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서문로 8, 2층 대표이사 김형철

72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들과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대

북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동 525-3761 • 신 222-8171
• 동 571-7658 • 오 266-7801

• 동 433-1503 • 문 433-1503

• 동 673-6836 • 문 222-9054
• 동 225-6001 • 동 222-9054
• 동 222-8171

남구 • 남 673-6836 • 북 651-1833
• 동 673-6836 • 동 675-6605
• 동 671-7276

서구 • 광 382-5788 • 상 372-2352
• 서 369-1625 • 문 376-7153
• 치 376-6511 • 동 603-0311
• 화 369-1625

광안구 • 남 952-1687 • 월 959-1920
• 청 973-2900 • 하 955-0451
• 광 944-0444